





제주도 노형 e-편한세상

이국적인 풍광의 섬 문화를 담은 주거 공간



휴양지의 리조트 같은 편안함을 선사하는 아파트, 제주도의 노형 e-편한세상에 사는 배영화 주부. 그녀는 편안한 휴식을 주는 아파트 노형 e-편한세상에서 판타지와 같은 삶을 살고 있다며 행복해한다. '섬'의 미학을 느끼게 하는 e-편한세상에서의 리빙 라이프에 대하여.

글 배영화 제주도 e-편한세상 104동 1402호 입주인

한라산을 중심으로 수정처럼 맑고 깨끗한 바다가 펼쳐진 제주도, 거리마다 심겨진 야자수와 돌하르방은 제주도만의 색다른 풍경을 물씬 풍깁니다. 제주도는 국내외 관광객들로 붐비는 휴양지이기도 하지만 현대식 도시의 면모도 제법 갖추고 있어요. 제가 살고 있는 노형 e-편한세상은 이러한 제주도의 특징적인 면모를 잘 담아낸 대표적인 아파트로 소문이 나 있습니다.

이제부터 제주도의 풍요로운 자연과 아름다움을 담은 우리 아파트를 소개해보고자 합니다.

우선 아파트 주 출입구에 들어서면서부터 제주도의 정서를 잘 살린 아파트임을 알 수 있어요. 단지 입구를 토속적인 상징물인 방사탑과 돌담으로 만들어 제주도의 지역성을 그대로 살리는가 하면, 단지 안에는 제주도에서만 자생하는 커다란 야자수, 소철, 한라산의 철쭉, 그리고 일일이 거론할 수 없을 만큼 다양한 종의 야생화가 가득합니다. 이렇듯 아파트 내에서 풀꽃 향기를 맡으며 생활할 수 있는 환경에 행복을 느낍니다.

단지 안을 산책할 때는 마치 내가 또 하나의 제주 휴양림을 산책하고 있는 듯한 착각이 들 정도예요. 마치 공원 안에 별장을 지어놓은 듯한 느낌이라고 할까요? 무엇보다 우리 아파트의 가장 큰 자랑거리는 조경이라고 생각하는데 다양한 종류의 나무를 특색 있게 심어서 그런지 보기 좋을 뿐만 아니라 공기 또한 아주 맑습니다. 아침에는 나무들 사이로 날아다니는 새소리에 눈을 뜨기도 합니다. 또 단지 옆쪽으로 근린공원과 어린이공원이 잘 갖춰져 있어 저녁 식사를 마치고 가족과



함께 단지 내 공원을 걷다 보면 저절로 운동이 된답니다.

그리고 꼬맹이들이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에 책가방을 둘러멘 채 흐르는 실개천에 손을 담그고 놀고 있는 모습을 보면 흐뭇하답니다. 요즘은 작은 연못에 수련화가 예쁘게 피어 있고, 그 밑을 금붕어랑 아주 작은 치어들이 왔다갔다 하는데 지나가는 할머니들이며, 꼬맹이들이 “금붕어 다~~!”라고 소리치면서 아주 좋아하답니다.

우리 아파트는 처음부터 대림산업에서 친환경 인증 기준에 맞춰 설계·개발했다고 합니다. 최우수 등급은 아마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라고 하더군요. 그래서인지 외부 환경이나 세대별 내부 환경이며, 모든 시스템이 조화롭게 잘 갖춰져 있습니다.

한라산의 사계를 감상할 수 있는 곳 계다가 우리 아파트 앞으로는 한라산이, 뒤로는 제주의 드넓은 푸른 바다가 펼쳐져 아파트 안에서 내려다보는 전망이 그야말로 일품입니다. 우리



아파트에서 바라보는 한라산의 풍경은 마치 병풍을 펼쳐놓은 것 같다고 할까요? 작년 겨울, 눈 덮인 한라산의 풍경은 한쪽의 산수화 같았죠. 그래서 집에 놀러 온 친구들마다 감탄사를 연발해서 저도 기분이 너무 좋았답니다. 앞으로 우리 집 발코니에 펼쳐질 한라산의 사계가 기대됩니다. 우리 아파트 단지는 새로 지정된 노형 택지

개발지구 안에 위치해서 제주 국제공항과 가깝고, 이마트 등 각종 편의시설이 인근에 있어 편리합니다.

또 새집에 입주하면 흔히들 목과 눈이 따갑고 물집이 생기는 등 새집증후군이 생겨서 불편하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이 아파트에 입주를 한 뒤 가족이 새집증후군으로 고생하지 않는 것을 보니 대림산업에서 정말 좋은 친환경 재료를 쓰는 것 같이라며 모두들 입을 모아줬습니다.

그리고 구석구석 여자의 마음을 세심하게 읽은 듯한 수납 공간도 정말 좋아요. 우리 집을 방문한 친구들과 친척들마다 넓은 수납 공간을 부러워했답니다.

또 하나 주부들의 마음을 읽은 듯 냉장고 외에 냉동고를 하나 더 배치해 정말 요긴하게 잘 쓰고 있어요. 다른 아파트에서 살 때 항상 냉장고만으로는 수납 공간이 부족했었는데, 그렇다고 냉동고만 판매하지도 않잖아요. 냉동고가 기본적으로 하나 더 설치되어 있어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발코니에 있는 실외 화단도 또 하나의 자랑거리랍니다. 제주도의 다른 아파트에서는 찾아볼 수 없답니다. 저희 집 화단에는 나무와 야생화, 상추랑 고추를 심었는데, 이렇게 실제로 손수 키워서 먹으니 우리 집은 자연스럽게 친환경 식단이 되어버렸답니다.

그 외에 단지 중앙의 지하에는 골프 연습장, 피트니스 센터 등의 커뮤니티 시설도 있습니다. 선컨(Sunken) 공간인 이곳에는 빛이 잘 들어와 지하라는 느낌이 전혀 안 들고, 오히려 쾌적해서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답니다. 분수대와 생태 연못 주위에 있는 팔각정과 작은 광장은 오며가며 만나는 이웃들과 담소를 나누면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마련해놓은 휴식 공간이랍니다. 친환경 인증의 노형 e-편한세상이야말로 제주도의 푸른 바다, 맑은 공기, 깨끗한 물과 푸르른 나무들이 조화를 이룬 친환경 아파트이기에 더욱 자부심을 갖게 합니다. ☺

